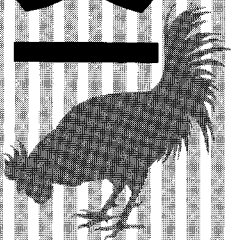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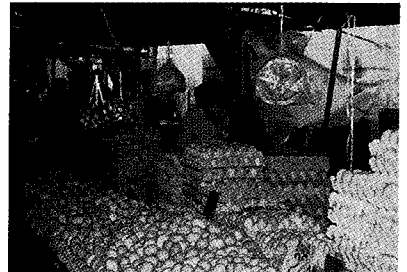
양계산물 소비량 급증

미국의 양계산물 소비가 금년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닭고기 계란관련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1인당 178kg을 섭취하여 소고기(152kg), 돼지고기(114kg)를 월등히 앞서면서 이례없는 소비증가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한 1주일에 1번정도 닭고기를 먹는다는 항목에는 89%, 1주일에 3번정도 먹는다는 반응도 36%에 이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계란의 경우도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이 254.6개로 큰폭 증가했으며, 1995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늘기 시작한 가공란은 1인당 73.5개, 일반 식란은 1인당 181.1개로 각각 28.8%, 7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농무성(USDA)은 발표하였다.(鷄鳴新聞, WP)

태국

난가폭락 대책마련 부심

태국이 금년 이후 계속되는 난가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지난해 농장 평균가격이 개당 40원에 판매되었으나 금년도는 이보다 1바트, 약 26원이 하락한 22원으로 근래들어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관련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1일 200만수가 넘는 계란이 과잉생산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태국의 가장 큰 식품회사인 CP사가 터무니 없이 사료가격을 높게 받고 있어 생산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CP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특히, 대두와 옥수수가격 상승 때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 곡물가격은 대두박이 kg당 182



원(7바트), 옥수수가 kg당 91원(3.5바트)인데 비해 CP사에서는 273원(10.5바트), 148원(5.7바트)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는 바람에 생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WP)

라투비아

러시아 계란 수입 금지조치

발트 3국의 하나인 라투비아에서는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던 닭고기와 계란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입금지 조치의 주원인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뉴캐슬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라투비아에서는 지금까지 뉴캐슬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WP)

독 일

새로운 계란포장 표기시스템 도입

독일은 수입 방지와 자국내 채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년부터 새로운 계란 포장 표기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케이지 사육규제와 지난해 있었던 다이옥신 파동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취지는 원산지과 생산지 농장을 상표 위에 표기함으로써 거래 상인들과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U국가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독일의 경우 D, 벨기에산 계란은 B 등을 표기해 수입국들의 원산지를 알기쉽게 인식시키는 한편, 농장식별까지 가능한 고유 6자리 숫자를 상표

에 기입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표체계는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자국산 계란을 선호하는 독일 국민들의 선호도를 앞세워 질병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추세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WN)

중 국

닭고기 성장 지난해 60%

지난해 중국의 양계산업은 닭고기 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성장율은 2%, 닭고기 성장율은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 수출은 4배 가까이 급성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란수출은 1.63억개에서 1.35억개로 16% 감소되었다. 양계산업은 1980년 이후 약 20년간 6배가까이 성장을 해왔으며, 현재 중국의 1인당 계란소비량은 109개로 알려지고 있다.(WN)

일 본

β 카로틴 15배함유 계란 개발

일본 지바현(千葉縣)에서는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물질로 알려진 β 카로틴이 15배나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계란은 닭사료에 β 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신선한 목초(Italian Rye Grass)를 첨가하여 급여하는 방식으로 이 닭에서 생산된 계란은 일반란 보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鷄鳴新聞)